

이슈브리프

No. 2025-24

2025 참의원 선거 이후 혼돈의 일본 정치 : 일본 정치질서의 재편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은미

연구위원

2025-08-19

이시바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주목받았던 참의원 선거(7.20)에서 자민당은 참패했고, 이시바 총리는 퇴진 위기에 몰렸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목표로 세웠던 전체 의석 수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이시바 내각은 중·참의원 모두 의회의 과반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선거의 참패로 즉각 사임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시바 총리는 임기를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였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퇴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자민당 참패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부진 속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 대안세력들의 약진은 지금까지의 자민당 1강(強) 구도의 붕괴와 일본 정치의 구조적 재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조되는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이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된 대통령 방일(訪日)과 한일정상회담은 국내정치와 리더십의 변화와 무관하게 한일관계의 안정화와 한미일 협력의 공고화를 다지는 구체적인 조치가 더해져야 한다. **둘째**, 자민당 1강 구도의 붕괴와 일본 정치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자민당 외 주요 정당들과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에서 표면화된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 예방을 위한 외교 및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

1. 향후 일본 정국(政局) 전망 및 한국에의 함의

참의원 선거의 참패로 조기 사임이 예상되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총리직 유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치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과 퇴진 논쟁¹ 속 정책별 연합 형성, ▲이시바 총리 사임과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 ▲이시바 총리 사임을 전제로 한 자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립여당 구성, ▲새 연립여당과 자민당 외 정당에서 새로운 총리 선출, ▲신임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및 선거 실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시바 총리는 사임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민당 1강 구도가 흔들리면서 일본 정치는 새로운 연립 형성이라는 새로운 질서 재편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 유지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고,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지만(사임 찬성: 36%, 사임 반대: 54%, 아사히신문 8.17),²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는 자민당 내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이시바 내각에 협력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시바 총리는 결국 사임할 수밖에 없고, 자민당은 새로운 총재를 선출해 총리 지명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현 농림수산대신,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현 관방장관,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등이다. 이시바 총리가 재출마하는 가능성도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총재 임기 만료 전 긴급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 방식으로,³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 의원들이 ①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 대안정당으로 돌아선 기존 보수 지지층을 되돌리고자 한다면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혹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대신이 유리할 것이며, ②자민당 쇄신과 세대교체를 중시한다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대신 혹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대신이 유력할 것이다. 그러나 ③향후 여소야대 국정 운영을 고려할 때는 야당과의 협치 능력이 평가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혹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대신 등이 적합하다. ④새롭게 구성될 연립여당에서 새로운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내세우는 방안으로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가 총리가 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 총리 교체를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총리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총리의 태도와 인식에 있다. 한일협력과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를 대하는 상반된 태도와 인식은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핵심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민당 내 온건파인 이시바 총리가 교체되고, 역사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총리가 등장할 경우, 어렵게 정상궤도에 오른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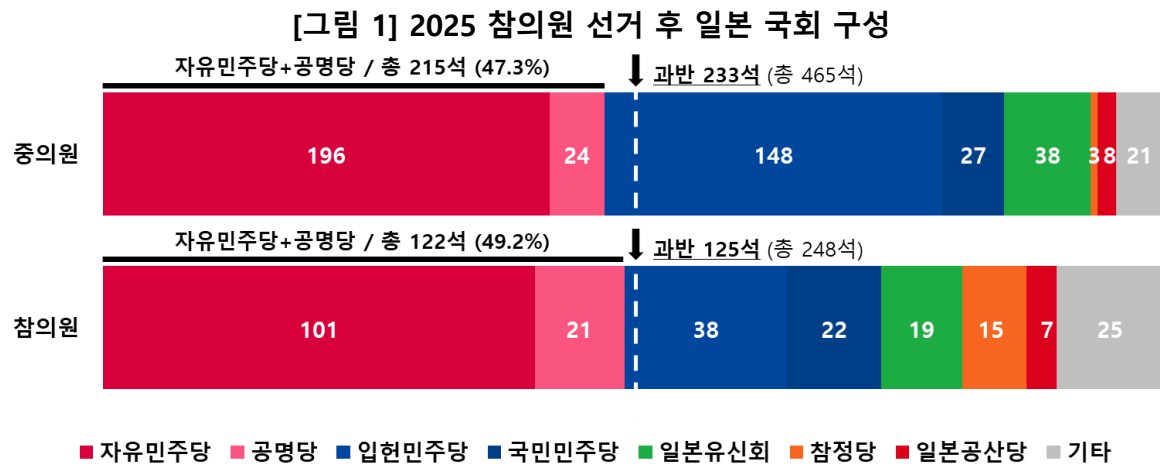
2. 자민당 1강 구도의 붕괴와 대안 정당의 약진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편, 이시바 총리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후 80주년 메시지'(내각-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담화'로 부르지 않음)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보수계 의원들은 이미 총리에게 '전후 80주년 메시지' 발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차기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대신과 연립여당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 또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 스스로 내각의 의결을 거치는 '담화'는 아니라고 한 만큼, 담화를 낼 가능성은 낮고, 이시바 총리가 그 시기를 정하지는 않은 만큼 정확한 시기도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개인적 견해 발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 식사(式辭)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면서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한⁴ 점이 크게 국내외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쟁은 곧 비록 총리 발언이 지니는 파급력과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일 간에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 그리고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한일대륙붕협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 정치의 변화가 자칫 한일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치는 일부 시기(1993.08~1994.06, 비자민 연립여당, 2009.09~2012.12, 민주당 정권)를 제외하면, 자유민주당이 집권당으로 확고히 자리해 왔다.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의 역사는 곧 일본 정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은 1당 지위는 유지했으나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림 1]은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국회의 구성 현황을 보여주는데,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 수를 포함하더라도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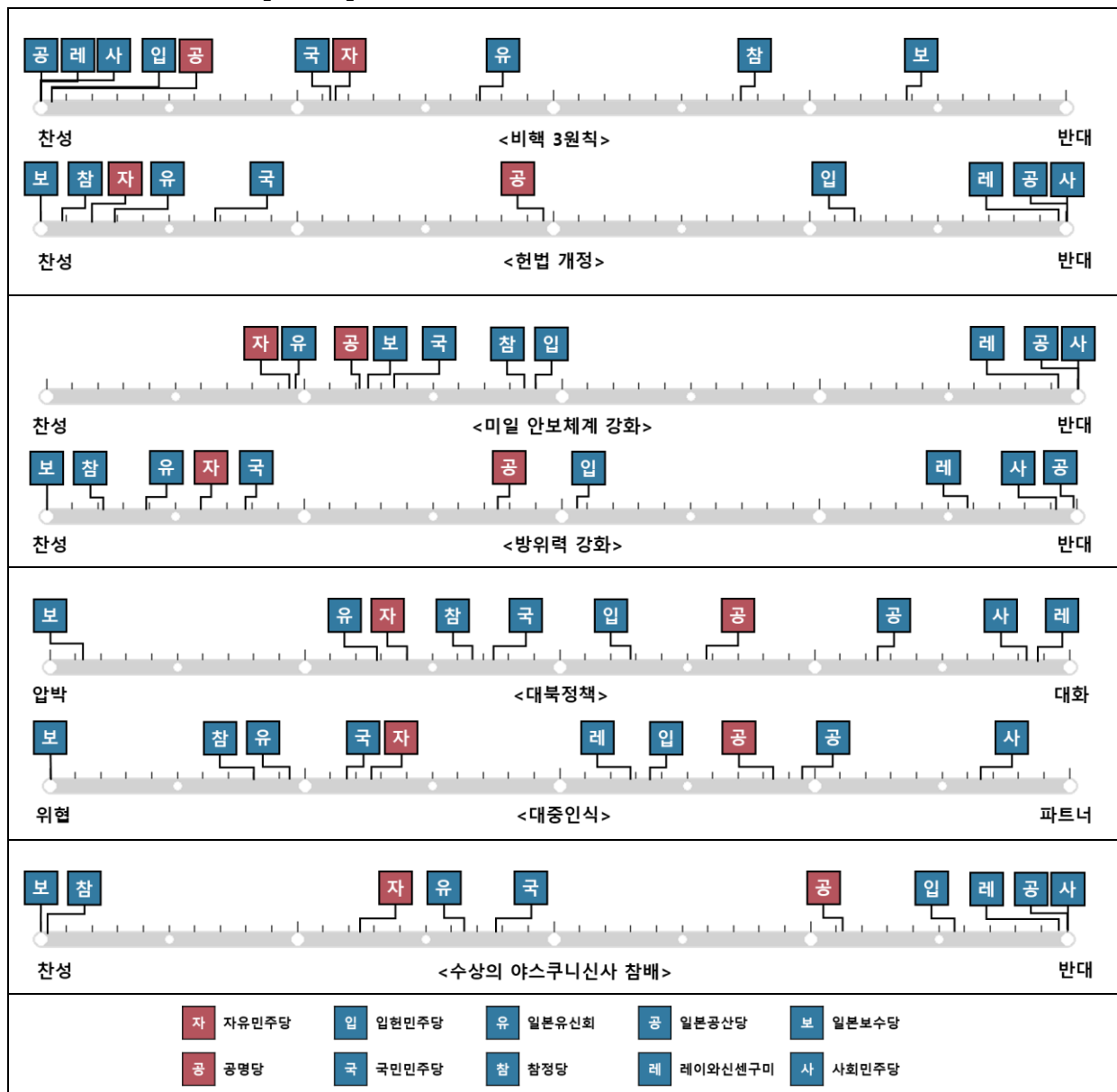
자료: 중의원 수(2025.5.14 기준) 및 2025 참의원 선거 결과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이에 따라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은 소수여당 상황에서도 여당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력에도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민당은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공명당 외에 정책 성향이 유사한 '일본유신회' 또는 '국민민주당'과 새롭게 연립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그림 2]는 당선자들의 정당별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모두 헌법개정과 방위력강화 등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해 자민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점도 자민당과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은 자민당의 우경화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새롭게 구성될 연립여당에서는 자민당 내 강경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 당선자 정당별 외교안보분야 성향 평균



자료: 朝日・東大谷口研究室共同調査 (아사히 신문-도쿄대 타니구치 연구실 공동 조사)⁵ 일부 발췌 및 재구성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새롭게 구성될 연립여당 내에서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한일관계에 있어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역사 문제, 독도 도발, 그리고 안보 협력 등 민감한 사안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한일 간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의 복잡성을 더하고,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 내 정치 변화와 새 연립여당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한일관계의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내 강경 세력 확대에 대비한 다각도의 외교채널 확보와 유연한 대응책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

3. 한국에의 합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자민당이 참패한 선거 결과와 퇴진 위기에 몰린 이시바 내각에 대한 영향은 즉시 나타났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야당 공동 발의로 지난 6월 참의원의 반대로 폐안되었던 '가솔린세 잠정세율 폐지 법안'을 8월 1일 임시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며 여소야대의 현실화를 알렸다. 대외적으로 8월 15일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기대되었던 종전 80주년 담화는 총리 개인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된 대통령 방일은 국내정치와 리더십의 변화에도 한일관계의 안정화와 한일 협력의 공고화를 다지는 구체적인 조치가 더해져야 한다. 2023년 이후 재개된 셔틀외교의 모멘텀은 양국 모두 정국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6월 한일 양국에서 열린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에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도 이러한 변동기 속에서 우호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내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방일에서는 '포스트 이시바'로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의 연속성 및 우호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방위비 분담문제 등 미국을 상대로 한 동맹국 간의 소통과 협력 노력이 어느 때보다 그 필요성이 높은 만큼 양국 협력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심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도광산 추도식, 대륙붕 문제 등 한일 간 민감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본 측에도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한일관계 안정화와 협력기반이 더욱 튼튼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민당 1강 구도의 붕괴로 기존과 다른 성격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음에 주목하며, 자민당 외 주요 정당들과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 자민당 1강 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자민당 외 정당들은 한국에게 익숙하지 않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정당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조차 그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 집권을 해 오던 상황에서 자민당 외 정당들은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향후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그리고 향후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참정당'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국의 요구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본 내 정치 구도 변화와 새 연립여당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갈등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 문제와 안보 협력 등 민감한 이슈에 있어 양국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신뢰 구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본 내 강경 보수 세력이 부상하더라도 실질적 국익 증진과 지역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경제, 문화, 기술 협력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성과를 쌓아 신뢰 기반을 넓히는 한편, 안보 사안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목하고,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외교 및 행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선거 쟁점으로 크게 주목받은 외국인 정책은 현재 일본 사회 내부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잉관광(오버 투어리즘) 문제,⁶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우려⁷ 등은 일본사회의 긴장감과 불안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참정당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의석을 늘린 참정당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수준의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한국인이 직접적인 타겟이 된 것은 아니지만, 배외주의적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어진다면 재일동포뿐 아니라 관광객, 유학생, 취업자, 그리고 일본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기존까지 유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일본 내 유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⁸ 향후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음에 주목하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외교 및 행정적 준비와 대응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

별첨. 2025 참의원 선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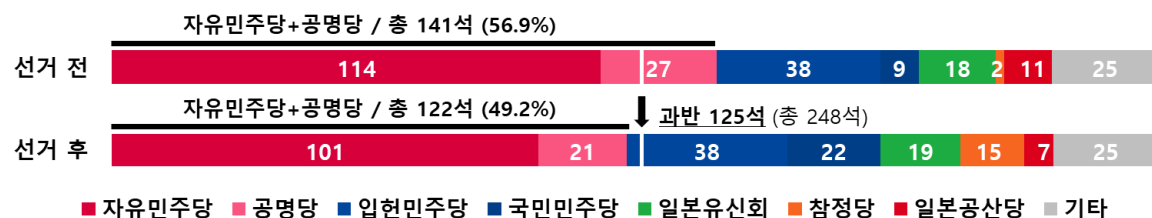
1. 선거 결과 및 특징: 기존 정당들의 참패와 대안 정당들의 약진

■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참패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부진 vs. '국민민주당'의 약진과 '참정당'의 급부상

선거결과는 자민당의 참패였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선거전 66석(자민당 52석, 공명당 14석)에서 19석을 잃어 47석(자민당 39석, 공명당 8석)을 얻는 데 그쳤고, 이시바 총리는 승패라인으로 잡은 '50석'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넘지 못하며 소수여당으로 전락하였고, 이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이다.⁹

[표 1] 2025 참의원 선거 전/후 의석 수 변화

정당	선거 전 의석 수	선거 대상 의석 수	당선 의석 수	선거 후 의석 수	증감
자유민주당	114	52	39	101	-13
공명당	27	14	8	21	-6
입헌민주당	38	22	22	38	-
국민민주당	9	4	17	22	+13
일본유신회	18	6	7	19	+1
참정당	2	1	14	15	+13
일본공산당	11	7	3	7	-4



자료: 2025 참의원 선거 결과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전 22석을 유지하며 제1야당의 지위는 유지하였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었다. 지난 10월 중의원선거에서 크게 약진한 ‘국민민주당’은¹⁰ 이번 선거에서도 기존 4석에서 17석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또한, 선거 기간 내내 ‘태풍의 눈’으로 불리며 주목받은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4석으로 급부상하였다. 선거 결과, 참정당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법안(11석 이상)을, 국민민주당은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21석 이상)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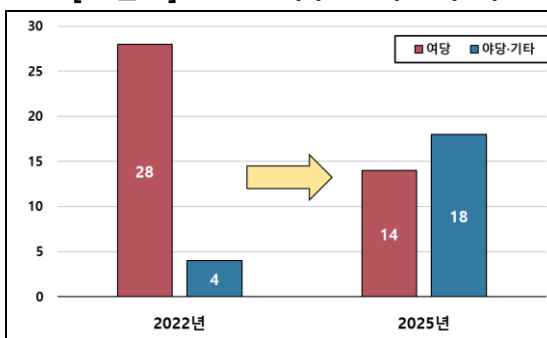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총 19석(자민당 -13석, 공명당 -6석)을 잃었고, 입헌민주당(0)과 일본유신회(+1), 공산당(-4석)은 현상 유지 혹은 부진한 성적을 보인데 반해, 국민민주당(+13석)과 참정당(+13석), 일본보수당(+2석), 팀미라이(チームみらい)(+1석) 등 대안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2. 자민당 참패의 원인과 주목해야 할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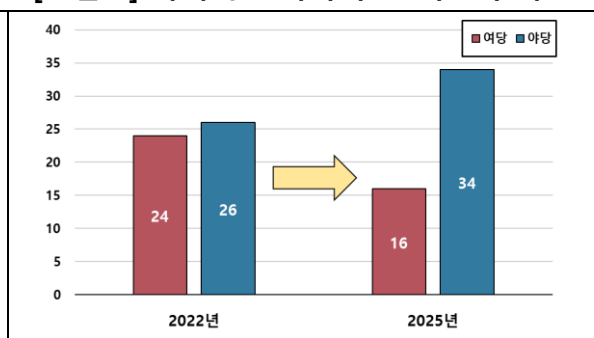
■ 자민당은 왜 참패했나?

선거 기간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당의 과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¹¹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특히, 정당 선호도를 알 수 있는 1인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민당의 패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다. 1인 선거구에서 자민당은 2022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14석을 잃었고([그림 3] 참조), 비례 의석에서도 여당은 8석(자민당 6석, 공명당 2석)을 잃었다([그림 4] 참조). 반면,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 대안정당들은 3년 전과 비교하여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표 2], [표 3] 참조).

[그림 3] 1인 선거구 선거결과 비교



[그림 4] 비례대표 의석 수 선거결과 비교



자료: 2022년 및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표2] 2025년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수 및 의석 수

정당	의석 수	득표 수 (%)	총 50석
자유민주당	12	12,808,306 (21.6)	여당 16석 (32%)
공명당	4	5,210,569 (8.8)	
입헌민주당	7	7,397,457 (12.5)	야당 34석 (68%)
국민민주당	7	7,620,492 (12.9)	
일본유신회	4	4,375,927 (7.4)	
참정당	7	7,425,053 (12.5)	
일본공산당	2	2,864,738 (4.8)	
레이와 신센구미	3	3,879,914 (6.6)	
일본보수당	2	2,982,093 (5.0)	
팀 미래이	1	1,517,890 (2.6)	
사회민주당	1	1,217,823 (2.1)	

[표3] 2022년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수 및 의석 수

정당	의석 수	득표 수 (%)	총 50석
자유민주당	18	18,256,245 (34.4)	여당 24석 (48%)
공명당	6	6,181,431 (11.7)	
일본유신회	8	7,845,995 (14.8)	야당 26석 (52%)
입헌민주당	7	6,771,945 (12.8)	
일본공산당	3	3,618,342 (6.8)	
국민민주당	3	3,159,625 (6.0)	
레이와 신센구미	2	2,319,156 (4.4)	
참정당	1	1,768,385 (3.3)	
사회민주당	1	1,258,501 (2.4)	
NHK당	1	1,253,872 (2.4)	

자민당은 왜 이렇게까지 패배했고, 대안정당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약진할 수 있었나? 이러한 일본의 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향후 일본 정치의 개편과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민당은 수년간 선거 결과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 해 중의원선거(10.27), 올해

도쿄도의회선거(6.22)에¹²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각 선거에서 대안 정당의 약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자민당 우위의 일본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 자민당의 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와 선거 쟁점 이슈(의제) 주도의 부진

당초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고물가대책'이었다. 이는 선거 기간 제시된 각 당의 슬로건(캐치프레이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³ 고물가대책으로 자민당은 전국민 2만 엔 현금 급부(지급)를, 대다수의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¹⁴ 하지만 국민 여론은 현금 지급보다는 감세에 더 우호적이었고(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현금 지급 찬성 16%, 감세 찬성 55%),¹⁵ 자민당은 끝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표 4] 2025 참의원 선거 주요 정당별 선거 슬로건

정당명	슬로건(국문 번역)	슬로건(원문)
자유민주당	일본을 움직이다 삶을 풍요롭게	日本を動かす 暮らしを豊かに
입헌민주당	고물가로부터 당신을 지켜낸다	物価高から、あなたを守り抜く
공명당	한다고 하면, 해낸다	やると言ったら、やり切る。
일본유신회	사회보험료로부터 생활을 바꾸다	社会保険料から、暮らしを変える。
일본공산당	물가폭등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평화로 희망을 갖는 새로운 일본을	物価高騰から暮らしを守り、平和で希望が持てる新しい日本を
국민민주당	실수령을 늘리는 여름	手取りを増やす夏。
레이와신센구미	빠르게 소비세 폐지, 더 현금지급	さっさと消費税廃止、もっと現金給付
참정당	일본인 퍼스트	日本人ファースト
사회민주당	강건하게 평화! 미사일보다 쌀을!	がんこに平和！ミサイルよりコメを！
일본보수당	일본을 풍요롭게, 강경하게	日本を豊かに、強く。

출처: 각 정당 홈페이지 참조하여 필자 작성

흥미로운 점은 선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쟁점이 달라진 것이다. 앞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정당을 제외한 모든 주요정당은 고물가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참정당은 외국인 증가로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졌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외국인 문제를 쟁점화시켰고, 일본인 퍼스트(日本人ファースト)를 앞세우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호소했다. 이러한 주장이 크게 주목받으며, 선거기간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질서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신사무국(外国人との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へ 新事務局)」을 내각관방에 설치했고(7.15),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¹⁶ 선거공시일인 7월 3일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¹⁷ 참정당이 주도한 이슈에 정부 여당이 이끌어간 형국이 되었다.

(2) 자민당에 대한 신뢰 하락과 불만 축적

2022년 말부터 제기된 ‘정치자금 스캔들’ 이후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고,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으로 드러난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 구 아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문제는 결국 자민당 내 대다수의 파벌 해체까지 이끌었다(아소파는 유일하게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에도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결과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높은 불만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자민당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지 못한 채 기존 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더해 앞서 지적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과 장기간에 걸친 자민당 집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다는 불만이 쌓여갔다.

(3)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선거 전략

지난 해 중의원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국민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참정당’의 공통된 특징은 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이었다.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YouTube, Instagram, X(구 twitter) 등 SNS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은 젊은 층과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무당파층)의 관심을 끌었고, 이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었다.¹⁸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급부상한 참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한 유권자들의 경우 SNS를 중시했다는 답변이 73%에 달했다.¹⁹ 선거 기간 참정당의 공식 계정 동영상 재생 수는 5,000만 건 이상이었고, 정당 공식계정 X의 팔로워 수는 66,000여 명(선거 전일 7.19 기준) 이상으로 타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는 여당인 자민당의 10배 이상(6,100여 명, 동일 기준) 되는 수치였다.²⁰

전통적으로 자민당은 이익집단과의 협력 속에서 조직적으로 표를 동원하거나, 고정지지층의 표를 결집하고, 파벌과 당내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을 활용해 왔다. 특히, 파벌의 지원은 자민당 승리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치자금 스캔들 이후 대다수의 파벌이 해체된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파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놓였다. 더욱이 폭등한 쌀값을 낮추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했다.²¹ 한편,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 또한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해 왔으나, 창가학회의 고령화와 젊은 층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단적 동원력은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특정 지지층에 기반한 선거 전략이 구조적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눈에 띄는 새로운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그동안의 집표 전략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장기 집권해 온 자민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축적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수년간 자민당의 선거 성적은 좋지 않았다. 이는 결국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수 획득 실패로 이어져 자민당이 소수여당으로 전략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정당들의 도전으로 이어졌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으나, 지난 중의원선거에서는 국민민주당이 크게 약진하였다. 바로 직전의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는 오사카에 기반한 지역 정당이었던 일본유신회가 전국구로 확대하며 크게 세력을 확대했다. 1955년 창당 이래 지금까지 자민당의 역사에서 이처럼 신생 정당들의 약진이 주목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시대적 변화와 전통적 지지기반의 이탈 혹은 감소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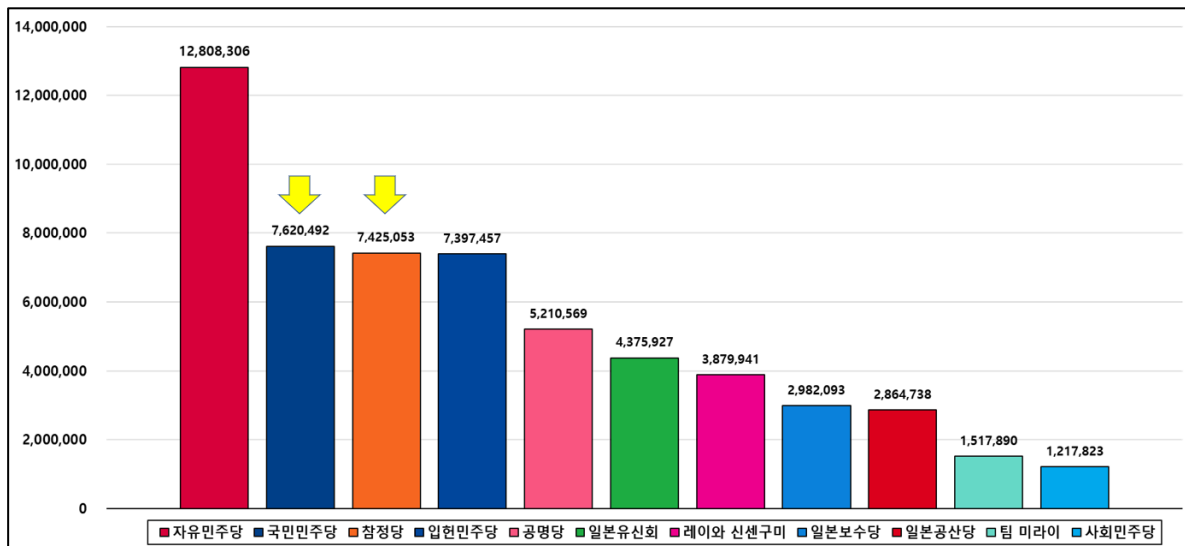
■ 주목해야 할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실수령액 늘린다”는 구호로, 지난 10월 중의원선거에서 크게 약진한 국민민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의석 수를 크게 늘리며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당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례대표에서는 자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야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보다 앞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유사한 보수적 색채를 가지면서도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대안 세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의 주요 지지 단체는 전국노조(UA 전선,

자동차, 전기, 전력 등)이지만,²² 동시에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향후 자민당과의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2025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득표 수



자료: 2025 참의원 선거 결과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한편, 이번 선거에서 기존 1석에서 14석으로 의석을 늘린 참정당은 다음 중의원선거에서 25~30석(현재 3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다.²³ 이와 같은 참정당의 목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급부상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창당 5년, 국회 입성 3년에 불과한 '신생 정당'이지만, 전국적인 조직망과 안정된 자원, 'DIY(Do It Yourself)'를 모토로 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SNS의 활용, 타운미팅 등을 통한 소통은 당원들 간의 유대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급부상한 신생 정당들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이다.²⁴ 또한, 특정 산업이나 단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 특히 무당파층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²⁵ 특징적이다. 참정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1인 선거구 32개 모두 후보를 냈고, 정당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자민당, 국민민주당에 이어 3위로 득표하며, 후보 10명 중 7명을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참정당은 조직 역량과 광범위한 세대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정치 지형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민당 중심의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두 정당 모두 당 대표 1인의 인기에 크게 의존하는 측면이 큼니다. 특히 참정당의 경우,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인해 당내 체제 정비와 입장 정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참정당 대표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선거 유세 중, 재일조선인을 비하하는 “쵸(チョン)”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즉시 발언을 취소하며 사과한 적이 있고,²⁶ 도쿄 선거구에서 7명 중 2위로 당선된 참정당 소속 사야 의원은 선거 기간 중 “핵무장이 싸게 먹힌다(安上り)”는²⁷ 발언으로 비판받고, 이후 당의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들은 참정당이 아직 당내 안정과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에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 ¹ 일본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자민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시바가 자민당 총재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즉, 자민당 내에서 '포스트 이시바'로 거론되는 후보들 중 누구도 이시바 총리보다 낫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의 강경 보수 노선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 총리의 하야(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의 주축이 정치후원금 스캔들에 연루된 구(旧) 아베파 의원들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시바 총리의 사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최근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7월 26~27일)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7%로, 찬성 응답 41%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이 같은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朝日新聞. "石破首相は「辞めるべきだ」41%、「必要はない」47% 朝日世論" (2025.7.27)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7W2SV3T7WUZPS003M.html> (검색일: 2025.7.30)
- ² 朝日新聞. "首相「辞める必要ない」54%、「辞めるべきだ」36% 朝日世論" (2025.8.17) <https://www.asahi.com/articles/AST8K2RW3T8KUZPS001M.html> (검색일: 2025.8.18)
- ³ 최은미. 2020. "스가 (菅義偉) 내각 출범을 통해 본 일본의 정치변동과 향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 ⁴ 日本経済新聞. "戦後80年、石破首相「反省」に込めた記憶の継承 式辞に13年ぶり復活" (2025.8.15)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6OZ0U5A810C2000000/> (검색일: 2025.8.18)
- ⁵ 朝日新聞. "(朝日・東大谷口研究室共同調査) 参院も少数与党、合意形成の責任 各党、ガバナンス整備の時" (2025.7.30)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6270653.html> (검색일: 2025.8.4)
- ⁶ 朝日新聞. "オーバーツーリズムとは? 原因や影響、問題点や対策を具体例付きで解説"(2024.7.24) <https://www.asahi.com/sdgs/article/15357805> (검색일: 2025.8.2)
- ⁷ NHK. "「外国人増加で治安が、賃金が...」広がる情報を検証 誤りも" (2025.7.16)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716/k10014864391000.html> (검색일: 2025.8.2)
- ⁸ 共同通信. "留学生の支援限定を了承 文科省委、学生は抗議署名" (2025.7.30) <https://www.47news.jp/12941600.html> (검색일: 2025.8.9)
- ⁹ 日本経済新聞. "参議院選挙、自民・公明大敗で過半数割れ 衆参両院ともに少数与党" (2025.7.2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05QD0Q5A720C2000000/> (검색일: 2025.7.21)
- ¹⁰ 최은미. "사도광산 주도식 파행 이후의 대일외교: '소수여당' 이시바 2차 내각과 한일관계" Issue Brief 2024-40. 아산정책연구원. pp.1-17.
- ¹¹ 東京新聞 "いよいよ参院選、自民&公明の過半数維持は「すごく難しい」 野党各党の展望は?" (2025.7.3) <https://www.tokyo-np.co.jp/article/416843> (검색일: 2025.7.28)

- ¹² NHK. “都議選 都民が第1党に 自民 過去最低議席に 国民 参政が初議席” (2025.6.23)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22/k10014839821000.html> (검색일: 2025.7.29)
- ¹³ 時事通信. “キャッチフレーズ、物価高色濃く 各党戦略を反映【25参院選】” (2025.7.8)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070700717&g=pol> (검색일: 2025.7.21)
- ¹⁴ 時事通信. “物価高対策、最大の争点 「減税か給付」で与野党対立—「深掘り・日本の課題」【25参院選】” (2025.7.6)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070500212&g=pol> (검색일: 2025.7.25)
- ¹⁵ 毎日新聞. “物価高対策「消費減税がいい」55% 給付金案は16% 世論調査” (2025.6.29)
<https://mainichi.jp/articles/20250629/k00/00m/010/178000c> (검색일: 2025.7.25)
- ¹⁶ 朝日新聞. “政府が外国人政策の事務局組織を設置 参政党の伸長で参院選の争点に” (2025.7.15)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7H2HQVT7HUTFK002M.html> (검색일: 2025.7.22)
- ¹⁷ NHK. “参議院選挙 ネット上の選挙戦を分析 結果は?” (2025.7.20)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720/k10014868411000.html> (검색일: 2025.7.23)
- ¹⁸ NHK. “参議院選挙 国民と参政が躍進 背景には“戦略的なSNS活用” (2025.7.22)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722/k10014870031000.html> (검색일: 2025.7.23)
- ¹⁹ 朝日新聞. “就職氷河期の40～50代が参政に投票 国民民主は20代 出口調査” (2025.7.20)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7N2VKCT7NUZPS002M.html> (검색일: 2025.7.23)
- ²⁰ 読売新聞. “参院選、選挙中のSNSやネットで話題の動きをデータで探る” (2025.7.20)
<https://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250709-OYT1T50103/> (검색일: 2025.7.29)
- ²¹ 朝日新聞. “コメ対応が揺るがす自民の大票田 動く小泉氏、「農業票」はどこへ” (2025.7.12)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7C3WDJT7CUTFK00HM.html> (검색일: 2025.7.28)
- ²² 毎日新聞. “国民民主党の支援労組って？ 自動車・電機など4団体、連合全体の半数342万人＝回答・安部志帆子” (2023.9.19) <https://mainichi.jp/articles/20230919/ddm/003/070/065000c> (검색일: 2025.8.1)
- ²³ 日本経済新聞. “参政党の神谷宗幣代表に聞く 次の衆議院選挙「25～30議席は現実的」” (2025.7.3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9AWR0Z20C25A7000000/> (검색일: 2025.8.1)
- ²⁴ 日本経済新聞. “参政党伸ばした組織と集金力 地方議員12→155人、党員は維新超え” (2025.7.30) (검색일: 2025.8.1)
- ²⁵ 0テレNEWS. “「SNSを最も参考に」参政党は55%、自民党は？バズりやすい“外国人政策”、実際はそれほど重視されず？【それって本当？】”(2025.7.23)
<https://news.ntv.co.jp/category/politics/9ed3fc8bd0124a25a89b308a72553cdd?p=3> (검색일: 2025.8.2)

²⁶ 読売新聞. “参政・神谷代表が演説で「バカだ、チョンだ」...「差別的なことを言うと記事になる」とすぐ訂正” (2025.7.18) <https://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250718-OYT1T50140/> (검색일: 2025.7.30)

²⁷ 朝日新聞. “参政党候補のさや氏「核武装は安上がり」 入党前には徴兵制に言及” (2025.7.18)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7K3VNYT7KUTFK01KM.html> (검색일: 2025.7.30)